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3:21-31(현대인의 성경)

1. 말씀

21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2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4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5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26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27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28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29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30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이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인정을 해 주십니다.

31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욱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본문은 하나님에게 의롭다 함을 인정 받는 것에 대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21절), 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23절)

→ _____

-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24절) 어떻게(25절) 성취하였나요?

→ _____

- 신앙생활이나 섬김 가운데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랑을 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본능적으로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우리에게 바울은 어떻게 말하나요?(27-28절)

→ _____

- 31절은 믿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세운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순종(율법적 삶)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 _____

-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내가 받게 된 '의롭다 하심'의 의미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_____

-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차별 없이 믿는 자는 누구나"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_____

- 오늘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3:21-31 (믿음으로 의롭게 됨)

율법이 유일한 계시이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구약 시대와 달리, 바울은 율법 밖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격리되었던 인간은 율법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 기준으로 자신의 선을 판단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여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도덕적 결점을 채워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롭다 함을 믿음의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의 자랑을 무색하게 만들며, 복음의 진리는 '선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인간들의 생각을 부질없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자,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았음을 감사히 여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사람이 차별한다면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모순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잘 것 없는 자아를 자랑치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의롭게 됨'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뤄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보며, 우리를 의롭게 하여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6. 기도